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高 시대'... '짠돌이 생활' 백태

“방 하나만 불때고 겨울나요”

車무게 줄게 조금씩 주유 학자금 부담 “군대 가자”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다. '3고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짠돌이 생활'도 백태다.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뒤지고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유(油)테크' 기본=지난 18일 현재 광주지역 일선 주유소 최고 휘발유는 1ℓ 당 1천689원, 최저가는 1천550원선. 광주에서 목포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정승현(31·광주시 서구 농성동)씨의 한달 기름값은 35만원 정도다. 정씨는 한 편이라도 아껴려고 유가관련 사이트(oilprice.co.kr, oilplaza.net, ohmyoil.com)를 통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기름을 넣고 있다. 두 달 전에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도 만들었다.

정씨는 “기온이 낮은 새벽과 아침 시간에 기름을 넣으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주유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 한달 평균 5만원 정도의 기름값을 줄였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영우(31·북구 오치동)씨는 석달 전 1천cc 소형차로 바꿨다. 이후 한 달 기름값이 3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줄었다. 박씨는 또 기름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조금씩(5천~1만원) 자주 넣어 차 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고물가, 바귀는 생활풍속도'=주부 이모(36·남구 방림동)씨 가족은 한 달 전부터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다. 겨울 동안 네 식구가 한 방에 모여 자기로 한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의 불만도 있지만 1드립당(200ℓ) 19만6천원에 달하



기름값 싼 주유소 찾아... '유(油)테크' 쪽 '들'에게 인기가 높은 광주시 북구의 한 주유소. 광주 시내 다른 주유소와 달리 휘발유 1ℓ 값이 1천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油)테크' 쪽 '들'에게 인기가 높은 광주시 북구의 한 주유소. 광주 시내 다른 주유소와 달리 휘발유 1ℓ 값이 1천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석 달만 참기로 했다.

주부 박현지(46·북구 문흥동)씨는 올해 김장을 하지 않았다. 값비싼 김치를 담그기보다는 포기김치를 사먹는 게 더 경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씨는 “양념값도 만만찮아서 포기김치를 그때그때 사먹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입대'로 고금리 돌파=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주부 임모(52·서구 쌍촌동)씨는 최근 두 아들에게 군입대를 권유했다. 임씨는 당초 학자금대출 7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금리가 7.46%로 오르면서 연 52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늘자 마지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부 박모(43·북구 오치동)씨도 올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포기했다. 연이자만 750만원에 달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가전제품 코드만 빼도 年 6만원 절감

에너지 실전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 절약 수칙'에 따르면 ▲절전용 멀티탭 사용시 연간 142kWh(절약액 2만2천720원) ▲TV·오디오 등 가전제품 대기전력(待機電力·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 사용시 392kWh(“ 6만2천720원) ▲컴퓨터 절전용 멀티탭 사용시 142kWh(“ 2만2천720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지사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온도 18~20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꺼두는 한편 승용차 요일제 참여(한 가구당 연평균 14만3천원 절약) 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법

제품	내용	절약량 (kWh/년)	절약액 (원/년)
냉장고	3등급을 1등급으로 교체시 23% 에너지 절약효과	168	26,880
세탁기	세탁시간은 10분 이내가 적당	14	2,240
고효율램프	고효율램프는 백열전구보다 수명 5배이상, 소비전력은 1/5 수준	852	136,320
형광램프	32mm보다 26mm가 수명과 절전에 좋음	7	1,120
대기전력	TV, 오디오 등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392	62,720
컴퓨터	절전용 멀티탭 사용 혹은 비사용시 플러그 뽑기	142	22,720

재즈바 간판 내걸고 사행성 오락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사행성 오락실을 재즈바로 위장해 불법영업 한 이모(4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에서 재즈바 간판을 내건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놓고 게임기 50대를 설치,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10%를 챙기는 등 1천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관련 경찰은 광주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던 김모(34)씨 등 2명을 추가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교수 산행중 숨져

20일 오전 8시25분께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늦게 등산로에서 전남대 사학과 정병철(47) 교수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등산 중 갑자기 호흡을 거칠게 쉬더니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교수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왔다는 주변인의 말에 따라 무리한 등반을 하던 중 심장마

비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전문메뉴얼리학과
www.godonga.co.k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전화 (062)233-5119
광주 상무지구 동대병원 건너편 이안빌딩 3층
문의 02-7119-8-4181

숨진 독거노인 타살 확인

지난 1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모(68)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은 20일 최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목재로 보이는 흉기에 의한 다발성 타박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최씨의 집에서 말 다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머리·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최씨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주방에 흉기가 있었는 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점으로 미뤄 단순강도가 아닌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최씨의 행적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장 출신인 최씨는 지난 2000년 아내와 사별한 뒤 광주시 북구 문흥동 M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오던 중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자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무 딸감 주택 화재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궁이 등 구형 난방시설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밤 9시 25분께 나주시 반남면 풍동마을 임모(89)씨의 집에서 불이나 임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지점 부엌 아궁이인 점으로 미뤄 아궁이의 불티가 주변 딸감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김모(여·69)씨 집의 아궁이 불티가 딸감으로 옮겨 붙어 집이 전소됐다.

또 지난 17일 영암군 군서면 서구리 최모(여·62)씨의 집에서 외벽에 쌓아둔 아궁이용 솥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화재가 발생, 주택 일부가 소실됐다. 하루 전인 16일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장모(80)씨의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과열로 불이나 주택 일부와 보일러가 불에 탔다.

지난 17일 낮 12시10분께 완도군 노화읍 천구리 손모(70)씨의 주택에서 감자를 삶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나 집이 전소되는 등 들어 전남지역에서만 10여건 이상의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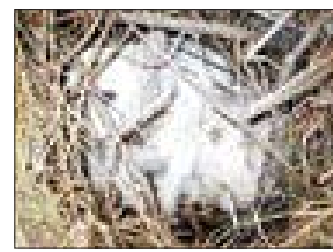
부상당한 떠돌이 개 '감동의 모정'

목줄이 삶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갓 태어난 새끼를 정성껏 돌본 떠돌이 암개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20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 울타리 인근 낙엽 더미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개가 위험하니 살려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낙엽이 쌓여있던 곳에서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이 공간에 몸길이 60cm 정도 되는 흰둥이 한 마리와 갓 태어난 새끼 다섯 마리가 있었다.

짖을 물고 있는 새끼들은 보기에도 살이 잔뜩 올라 건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미개의 목에서 피가 섞인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릴 때 주인이 채워준 것으로 보이는 목줄이 원인이었다. 떠



떠돌이 개로 커가면서 목줄이 천천히 삶을 파고들었고, 상처는 식도가 들어다보일 정도로 심각했다.

구조대원들도 어미개의 모정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원들은 흰둥이 가족들을 모두 구조대 사무실로 데려와 목줄을 끊고 응급 처치를 해줬다.

박형주(36·소방교) 반장은 “떠돌이 개 한 마리로 인해 다시 한번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미개 가족은 21일 전남대 동물병원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414) 김장동



다들 물어봐...
나원침 김장동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수, 도림, 대림
KCC양호, 시스텔양호 생산·시공
KCC(주)본드나리 KCC본드나리, 대림, 대림, 대림
실리콘·방수재·철척재·타이프
☎ 02-2629-2000 ☎ 02-2629-2001

부킹남 골탕먹여 지갑 '슬쩍'

○나이트클럽에서 눈이 맞은 남자와 모델이 들어간 30대 여성이 슬주정을 하는 부킹남을 골탕 먹이려고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달미.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모(여·34·경기도 광명시)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 광주시 서구 H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양모(31·광산구 송정동)씨와 근처 모텔에 투숙한 뒤 양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수동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갔다.

○사위를 마친 양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돈까지 잃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부킹과정에서 양씨에게 건네준 전화번호를 토대로 주씨를 검거.

○주씨는 경찰에서 “양씨가 부킹을 했을 때는 매너가 좋았는데 모델로 자리를 옮기고난 후 태도가 180도 바뀌어 그를 약올리려고 범행을 했다”며 후회.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실날 선물-안동 간고등어

전국택배 054)859-0571 054)859-0715
www.godonga.co.kr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포장 합니다.

안동 간고등어
안동 간고등어
안동 간고등어